

일기자료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층의 자기(磁器) 구득과 사용*

-『묵재일기』, 『미암일기』, 『쇄미록』을 중심으로-

윤 효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일기에 나타난 자기(磁器) 관련 기록의 검토
 - 1. 『묵재일기(默齋日記)』
 - 2. 『미암일기(眉巖日記)』
 - 3. 『쇄미록(瑣尾錄)』
- III. 16세기 사대부층의 자기(磁器) 구득과 사용 양상
 - 1. 사회적 위치에 따른 자기의 구득 경로
 - 2. 사대부가에서 사용된 자기의 종류와 용도
- IV. 맺음말

국문초록 | 본고는 16세기의 대표적인 일기자료인 『墨齋日記』, 『眉巖日記』, 『瑣尾錄』의 기록을 토대로 사대부층의 자기(磁器) 구득과 사용의 실상을 고찰한 것이다.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로(NRF-2022S1A5C2A02092180), 2023년 11월24일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공예문화의 장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尹微靖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ceramuse@hanmail.net.

투고일: 2024. 5. 14. 심사완료일: 2024. 6. 27. 게재확정일: 2024. 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7>

일기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사대부들이 자기를 확보해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직과 결부된 사회적 위치가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세기에 사대부들은 수증, 대어, 구매를 통해 백자나 사기를 구득할 수 있었지만 수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기의 확보와 사용이 가능하였다. 자기의 수증은 주로 지역적 연고나 관직과 결부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대부라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에 따라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규모나 품질 및 종류는 큰 차이가 있었다. 관인사대부였던 유희춘이나 이문건은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들로부터 상당량의 백자와 사기를 선물이나 구청을 통해 수증하였지만 피난의 와중에 관직의 이력도 없던 오희문은 필요한 사기를 관청이나 지인에게 빌려 쓰거나 시장을 통해 구입해 겨우 확보하였다. 한편, 당시 사대부가를 비롯해 민간에서 쓴 자기는 질적 차이에 의해 크게 ‘백사기(白沙器)’와 ‘상사기(常沙器)’로 구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대부가에서도 고품질의 자기인 ‘백사기’의 구득과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상사기’를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세기에 사대부가에서 자기의 주사용처는 혼례와 제사였으며, 특히 고품질의 백사기는 제기를 위주로 특별하게 쓰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핵심어 | 묵재일기(默齋日記), 미암일기(眉巖日記), 쇠미록(瑣尾錄), 상사기(常沙器), 백사기(白沙器), 제기(祭器), 혼수용 사기, 사회적 관계망[緣網]

I. 머리말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대두된 금속의 심각한 부족과 그에 따른 금속기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기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¹⁾ 조선 초에는 고려 말 상감청자를 계승한 분청사기가 전국적으로 제작되어 폭넓게 사용되었으나 15세기 중반 무렵 경질백자가 완성되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자기의 중심은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후 16세기가 되면 백자는 왕실에서 의례와 일상용을 위한 그릇의 핵심적 존재가 되고, 민간에서도 사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15~16세기에 걸쳐 왕조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부상한 백자의 사용 실태는 왕실을 위주로

1)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 『太宗實錄』 卷13, 太宗 7년 1월19일(甲戌).

파악이 시도되어 왔다. 그리하여 왕실과 관련해서는 관찬 및 사찬 사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백자에 대한 인식과 쓰임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난 반면 민간에서의 백자를 비롯한 자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²⁾

민간에서 자기를 사용한 정황은 문집, 일기, 유서류 등 방대한 사찬 사료의 기록에 산재되어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진 쓰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자료는 일기이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성격의 일기들이 작성되었는데, 도자와 관련된 기록은 일상적인 삶의 단면들을 자세히 기록한 생활일기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일기 중에는 도자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고, 대부분 종류나 수량 정도만 간단히 언급되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일부 일기에는 자기를 어떻게 확보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 실제의 쓰임을 자세히 기록한 경우가 있어 주목되는데, 16세기에 작성된 생활일기를 대표하는 『묵재일기(默齋日記)』, 『미암일기(眉巖日記)』, 『쇄미록(瑣尾錄)』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³⁾ 세 일기는 정치,

2) 왕실에서는 관요가 설치된 이후 경질의 백자가 전면적으로 사용되지만 민간의 경우는 16세기까지도 경질백자 뿐 아니라 연질백자나 백토분장한 담병분청사기가 함께 사용되었다. 사찬사료에는 민간에서 쓴 磁器가 沙器, 白沙器, 常沙器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었는데, 백자에 해당하는 백사기 외에 사기와 상사기의 경우는 백사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백자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관이 백자와 유사한 담병분청사기를 포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크게 ‘자기’의 범주에서 백사기, 사기, 상사기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현전하는 조선시대 일기는 대부분 중기와 후기에 작성된 것이다. 조선전기의 일기는 15세기의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16세기에 해당하는데, 생활일기는 많지 않고 관직생활과 관련된 사환(仕宦)일기나 임진왜란과 관련된 전쟁일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환일기로는 黃士祐(1486~1536)의 『在嶺南日記』, 禹伏龍(1547~1613)의 『東溪雜錄』, 金誠一(1538~1593)의 『北行日記』, 權機(1478~1548)의 『沖齋日記』가, 전쟁일기로는 李舜臣(1545~1598)의 『亂中日記』, 鄭琢(1526~1605)의 『龍蛇日記』, 趙靖(1555~1536)의 『南行錄』, 魯認(1566~1623)의 『錦溪日記』가, 생활일기로는 『眉巖日記』, 『默齋日記』, 『瑣尾錄』 외에 權文海(1534~1591)의 『草澗日記』, 金埰(1577~1641)의 『溪巖日錄』이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일찍부터 조선전기의 중요한 생활사 자료로 인정되어 다방면에서 학문적 검토가 이루어졌다.⁴⁾ 이 일기들에는 도자기를 비롯한 일상에서 사용된 다양한 물품들과 관련된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들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도자사나 공예사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검토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조선전기의 도자와 관련하여 이 일기들의 기록들을 살펴본 바 있는데,⁵⁾ 당시 사대부가에서 이루어진 자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 실상을 보여주는 다수의 기록들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작성 시기와 작성자의 사회적 신분이 각기 다른 세 일기에 등장하는 내용의 차이를 통해 당시에 이루어진 자기 구득과 사용에 대한 차별적 양상이 파악되었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조선전기의 일기자료를 대표하는 『목재일기』, 『미암일기』, 『쇄미록』에 등장하는 기록을 토대로 16세기 사대부가에서 이루어진 백자를 비롯한 자기의 사용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기별로 확인된 자기와 관련된 주요 기록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대부가에서 자기를 구득한 경로와 사용한 자기의 특징 및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II. 일기에 나타난 자기(磁器) 관련 기록의 검토

앞서 언급한 것처럼 16세기 사대부들의 생활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4) 세 일기에 대해서는 경제사, 복식사, 사상사, 음식사, 생활사 등 역사학 분야는 물론 물론 민속학, 문학, 의학, 건축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시도되어 방대한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지면의 한계상 세 일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5) 윤효정, 「조선시대 왕실주기 혜호배-기록과 유물을 통한 실체와 조형의 복원-」, 『미술사논단』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윤효정, 「조선전기 판요백자의 기명체계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포함한 『묵재일기』, 『미암일기』, 『쇄미록』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작성자들의 사회적 신분도 각기 달랐다([표1]). 세 일기에 등장하는 자기와 관련된 기록은 분량이나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당시 사대부층 내에서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자기의 확보와 사용이 달리 이루어졌던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장에서는 작성 시기의 순서로 일기별 주요 기록과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표1] 『묵재일기』, 『미암일기』, 『쇄미록』의 작성자와 작성시기

제목	작성자		작성시기	권수
『묵재일기』 (默齋日記)	이문건(李文健) (1495-1567)	재지사족	1535년-1567년 : 약 33년/ 17년 8개월분	14책/11권
『미암일기』 (眉巖日記) 보물 260호	유희춘(柳希春) (1513-1577)	고위직 중앙관료	1567년-1577년 : 약 11년	3책
『쇄미록』 (瑣尾錄) 보물 1096호	오희문(吳希文) (1539-1613)	비출사 사대부	1591년-1601년 : 9년 3개월	7책

1. 『묵재일기(默齋日記)』

1535년부터 1567년에 걸쳐 약 33년간 작성된 일기로 저자 이문건(李文健, 1495~1567)은 고려 말 이래 영남의 대표 사족인 성주 이씨 가문의 후손으로 이조정랑, 승정원 승지, 빈전도감 낭청 등 중앙의 관직을 역임하다가 죽친들이 연루된 사화로 인해 경상북도 성주(星州)에서 22년간의 유배생활을 보낸 후 생을 마감하였다.⁶⁾ 일기는 앞부분에 모친상을 당해 시묘살이를 한 거우기

6) 이문건은 고려 말기 최대의 별족인 성주이씨 李兆年의 후손으로 본가 뿐 아니라 처가와 외가까지 모두 당대 최고의 명망가였다. 중종 14년(1519)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居憂期, 1535~1537)와 탈상 후 중앙 관료로서 복무한 사환기(仕宦期, 1537~1545)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성주에서 보낸 유배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자기와 관련된 기록은 특히 유배시기(1545~1567)의 일기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⁷⁾ 지방관 및 지인들을 통한 자기의 수증(受贈), 공납제와 관련된 사기의 징수와 구득, 그리고 안봉사(安峯寺)의 영당(影堂) 제사에 쓸 자기의 구득과 증여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주와 인근 지역의 지방관에게서 수증한 자기에 관한 기록이 다수를 차지한다([표2]). 이문건은 성주의 유력가문 출신이면서 중앙 관료의 이력이 있었고, 유배지였던 성주는 일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전답과 노비가 있는 관향(貫鄉)이었다. 때문에 유배인의 신분이었음에도 그가 도착한 직후부터 성주의 목사와 판관은 각종 편의와 함께 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특히 공물의 수취를 담당했던 판관(判官)의 경우⁸⁾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지만 이문건의 유배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또는 이문건의 구청에 응하여 적지 않은 자기를 꾸준히 제공하였다. 이문건이 목사나 판관들로부터 받았던 것은 거의 사기였지만 백사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문건이 수증한 사기 및 백사기는 반상기에 해당하는 사발(沙

중형 忠健이 己卯土禍에 연루된 탓에 9년간 停擧되었다가 중종 23년(1528) 文科에 합격해 관직생활을 시작해 司諫院 正言, 吏曹佐郎, 承政院 副承旨 등을 역임했고, 중종의 국상 때 홍문관 應敎로서 빈전도감의 낭청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1545년 조카 輝가 연루된 乙巳土禍로 연좌되어 貫鄉인 경상도 성주에 유배되었다.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45~47쪽.

7) 居憂시기와 仕宦시기의 기록 중 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6건으로 모친의 지석 번조와 제기로 쓸 사기를 구매한 내용과 빈전의 낭청으로 제기로 쓸 사기의 看檢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默齋日記』 1536년 6월26일; 『默齋日記』 1545년 윤1월26일, 윤1월27일, 윤1월29일.

8) 성주목은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와 판관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었는데, 軍役과 관련된 일은 성주목사가 전담하고 貢物의 납부나 徭役의 수취는 판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성임, 「16세기 지방 군현의 공물분정(貢物分定)과 수취」,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7, 41쪽.

鉢) · 접시[沙皿/沙貼是] · 보아(甫兒) · 대접(大貼)과 같은 종류들이었다.

자기의 수증은 성주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지방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김산(金山), 고령(高靈), 황간(黃澗) 세 지역의 현감들은 이문건이 안봉사의 영당(影堂) 제사에 쓰기 위해 자기와 제기를 구청하자 보내주었으며,⁹⁾ 삼가(三加) 현감 유직경(劉直卿)은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 자기를 이문건에게 선물하였다. 타 지역 지방관들의 수증품은 모두 자기였는데, ‘자기~죽(竹)’으로 수량만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기 · 향로 · 향합과 같은 특수기도 일부 포함되었고, 자기라고만 표기된 것은 거의 반상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표2] 이문건이 지방관들에게 받은 자기(磁器)의 수증 내역 - 『목재일기』

날짜	수증자	수증내역	자기의 종류	비고
1545년	9월29일	성주목사	沙器	沙器
	10월2일	성주판관	沙器 數竹	沙器
	12월1일	성주판관	沙器 數竹	沙器
	12월23일	성주판관	沙器	沙器 祭物
1546년	1월24일	성주판관	沙鉢, 沙貼是 3竹, 甫兒 1竹, 匕貼 1竹	沙器(50) 求請
	12월28일	김산현감	沙器 15竹	沙器(150)
1547년	1월24일	성주판관	沙鉢 1竹, 沙貼是 3竹, 甫兒 1竹, 匕貼 1竹	沙器(60)
	1월25일	성주판관	白沙鉢 2竹, (白)貼是 2竹, (白)大貼 15개	白沙器(55) 安峯寺 祭祀用
1552년	5월2일	성주판관	沙器 10竹	沙器(100)
	8월25일	성주판관	沙器 9竹	沙器(90)
1553년	1월3일	성주판관	沙器 5竹	沙器(50) 祭需用 求請

9) 김산현감에게 자기를 구한 기록은 『默齋日記』 1546년 12월26일과 12월28일에, 황간현감에게 자기를 구한 기록은 『默齋日記』 1555년 1월27일과 2월10일에 등장한다.

	5월4일	성주판관	沙器	沙器	祭需用
	11월5일	성주판관	常沙器	常沙器	
1554년	1월2일	성주판관	白沙器 8竹, 蓋 3	白沙器(80)	祭需用
1555년	1월3일	성주판관	沙器 5竹	沙器(50)	祭需用 求請
	1월27일	성주판관	白沙器10竹	白沙器(100)	
	2월10일	황간현감	沙器 5竹	沙器(50)	安峯寺 祭祀用
	12월27일	성주판관	沙器 10竹	沙器(100)	
	12월28일	성주판관	沙器	沙器	求請
1556년	6월6일	성주판관	沙器	沙器	머느리 생일선물
	2월10일	고령현감	祭器	●	
	10월28일	성주목사	沙器 15竹	沙器(150)	求請
1557년	5월9일	성주판관	沙鉢 5竹	沙器(50)	求請
1558년	1월7일	성주판관	沙器 10竹	沙器(100)	安峯寺 求請
1560년	1월24일	진주판관	香合, 沙香爐	沙器	
	1월26일	삼가현감	沙香爐 1	沙器	
	10월23일	삼가현감	沙器	沙器	
1563년	2월2일	삼가현감	沙器 5竹	沙器(50)	
	10월21일	삼가현감	沙器 10竹	沙器(100)	

이문건은 친분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자기를 수증하기도 했다([표3]). 지방 관들의 수증품이 반상기를 위주로 50개~150개 정도의 적지 않은 수량이었던 반면, 지인들의 선물은 1~2점 정도로 양은 극소했지만 특수기인 향로, 연적, 사합(沙合), 잔 등 종류는 더 다양했다. 1552년 성주 판관의 사촌으로 이문건과 자주 어울렸던 윤화(尹和)가¹⁰⁾ 선물한 백사이잔(白沙耳盞)은 관요에서 생산

10) 『默齋日記』 1552년 6월14일, 6월19일, 8월3일 참고.

된 대표적인 특수기였던 백자 쌍이잔[그림 1]과 동일한 기명이었고, 1556년 선산(善山)의 처사로 이문건을 자주 방문하며 교류했던 황기로(黃耆老)가¹¹⁾ 준 백사발(白沙鉢)과 함께 준 화발(畵鉢)은 문양을 장식한 백자로 철화백자 또는 청화백자 였다고 추정된다.



그림1. 백자쌍이잔,
높이 3.5cm, 입지름 7.5cm
국립전주박물관(전주46)

[표3] 이문건이 지인에게 받은 자기(磁器)의 수증 내역 - 『묵재일기』

날짜		수증자		수증내역	자기 종류
1545년	2월28일	이휘(李輝)	조카	沙香童硯滴	沙器
1546년	12월18일	박귀손 (朴貴孫)	의원(醫員)	煎藥沙合 1개	沙器
1552년	11월30일	윤화(尹和)	성주관관의 사촌	白沙耳盞一具	白沙器
	9월23일	박응렬 (朴應烈)	성주관관의 조카	沙硯滴	沙器
1556년	10월10일	황기로 (黃耆老)	선산(善山)의 은거처사	白沙鉢 1事 畵鉢 1事	白沙器

한편, 이문건은 재지사족으로 공납제에 관여하면서 자기장에게서 직접 자기를 구득하기도 했다. 공납제와 관련된 사기의 징수 및 구득에 관한 기록은 1546년부터 1563년에 걸쳐 이문건의 유배기간 동안 계속 등장한다. 이문건은 성주에 내려온 직후인 1546년부터 관청으로부터 공물 수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민호(民戶)로부터 사기를 징수해 납부하는 역할을 수행했고,¹²⁾ 그 과정에서 자기장을 비호해주고 대가로 사기를 제공받았다. 1546년

11) 『默齋日記』 1546년 1월22일, 1553년 2월29일과 5월18일 참고.
12) 『默齋日記』 1546년 1월23일, “沙器戶主來納兵使帖字內二十三竹 未來四竹云 教以沙鉢 二竹備納 ”.

과 1555년의 기록에는 이문건이 공물로 수취한 사기의 수량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여 결함이 있으면 다시 바치도록 한 사실과 사기장들의 불만과 비협조로 순탄치 않았던 사기의 수취 과정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¹³⁾ 이문건이 성주목에서 공물로 바칠 자기를 수취한 곳은 법수(法水)와 유곡(酉谷)의 두 사기점이었는데, 유곡과 법수에는 사기점 외에 철이나 명주(紬)와 같은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는 다른 수공업호들도 함께 존재했던 것 같다.¹⁴⁾ 특히 1557년 안봉사의 승려로부터 법수 사기점의 사기장을 보호해주고 그릇을 거둬 쓰라는 권유를 받고서¹⁵⁾ 이문건은 판관에게 사기장 천인손(千仁孫)의 관역(官役) 면제와 처벌에 대한 경감을 청탁하는 등 실질적인 완호관계를 맺게 되면서¹⁶⁾ 필요한 사기를 상납받게 되었다.¹⁷⁾

-
- 13) 『默齋日記』 1546년 1월25일, “沙器匠持沙鉢二竹 多有缺者 擇付改納 則辱之曰 當納諸判官而爲之 前納者可出給云云 卽出付之”; 『默齋日記』 1555년 1월28일, “子公昨持色吏文 往法水沙器店推常器 今日空還曰 店人以爲不實 不肯出器 一人隨到 探問眞僞云云 送其人于色吏 則色吏喻令十竹持納云云”.
- 14) 『默齋日記』 1546년 10월26일, 1559년 3월11일.
- 15) 『默齋日記』 1557년 2월19일, “信默來見言 法水沙器匠數店 可完護收器用之云云”.
- 16) 『默齋日記』 1557년 2월27일, “二道前告法水沙器匠千仁孫給完文”; 1558년 7월29일, “沙器匠千仁孫不裁柏罪 請緩不許”; 1563년 7월20일, “沙器匠千仁孫來言 戶主欲刷屬官役云 令子公喻色吏勿侵”.
- 17) 『默齋日記』 1557년 8월16일과 12월18일, 1559년 3월20일. 사기장에게 사기를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있지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이문건에게 청탁하여 관역을 면제받은 甕匠도 무상으로 도기를 여러 차례 상납하였다. 『默齋日記』 1556년 9월20일과 10월4일, 1557년 4월15일, 1558년 4월29일. 이문건은 沙器匠이나 甕匠 외 水鐵匠, 冶匠, 皮匠 등 각종 장인들의 官役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목사나 판관에게 부탁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수, 『默齋日記』를 통해 본 지방 匠人들의 삶, 『지역과 역사』 18호, 197~200쪽 참고.

자공(子公)이 어제 색리(色吏)가 써 준 문서를 지니고 법수(法水)의 사기점(沙器店)에 상기(常器)를 가지러 갔는데, 오늘 빈손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사기점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릇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진위를 탐문하러 따라 왔습니다”라고 했다. 그 사람을 색리(色吏)에게 보내니, 색리가 “10죽을 가져와 바치게 해라” 라고 했다. 18)

어제 여안(呂安)을 유곡(酉谷)의 사기점(沙器店)에 보내어 판관에게 보낼 봄 정월 월령백기(月令白器) 10죽을 찾아오게 했다. …19)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이문건은 유곡 사기점에서는 백기(白器)를, 법수 사기점에서는 상기(常器)를 각각 공물로 수취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상주목에서 공납한 백사기(白沙器)와 상사기(常沙器)는 별개의 가마에서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당시 성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백사기와 상사기를 주로 제작하는 가마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성주의 공납용 자기를 생산했던 유곡과 법수 사기점의 위치는 성주목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 조선 후기의 지도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표4]).

18) 『默齋日記』 1546년 1월25일, “沙器匠持沙鉢二竹 多有缺者 擇付改納 則辱之曰 當納諸判官而爲之 前納者可出給云云 卽出付之”.

19) 『默齋日記』 1555년 1월28일, “昨送呂安于酉谷沙器店, 推二道所送春正月月令白器十竹…”.

[표4] 조선 후기 성주목의 지도와 유곡방(酉谷坊)과 금물방(今勿坊)의 위치

<海東地圖>	<廣輿圖>
보물 제1591호, 8帖, 筆寫本, 18세기 간행(英祖年間:1724-177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古大4709-41)	7冊, 彩色圖, 18세기 간행(英祖13-英祖52:1737-177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古大4790-58)
	

두 지도에는 공통적으로 성주 읍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안봉사의 인근이 유곡방(酉谷坊)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유곡사기점은 이 유곡방 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수사기점의 경우 ‘법수’라는 명칭으로 보면 읍치 서쪽에 위치했던 법수사(法水寺) 근처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기에 등장하는 ‘금물법수(今勿法水)’의 철장(鐵匠)에 관한 기록으로 볼 때,²⁰⁾ 법수사기점은 독용산성(禿用山城) 인근의 금물방(今勿坊)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²¹⁾

20) 『默齋日記』 1559년 3월11일, 1561년 6월2일.

21) 성주목의 지도에는 今勿坊의 명칭이 今勿法坊, 今勿法面, 今勿山坊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해동지도>에서는 독용산성의 동쪽으로, <광여도>에서는 독용산성의 북쪽으로 위치도 다르다. 그렇지만 간행연도는 미상이나 상주목이 상세히 그려진 <地乘>과 <輿地圖>에도 독용산성의 북쪽이 今勿法面과 今勿山坊으로 표기되어 있어 금물방의 위치는 독용산성의 북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진행된 법수사와 독용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법수사지에서는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만 출토된 반면 독용산성 남문지에서는 인화분청사기와 함께 연질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따라서 법수사기점의 위치는 법수사쪽 보다는 독용산성쪽이 더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시 유곡사기점과 법수사기점은 읍치 중심부 외곽인 유곡방과 금물방에 각각 위치하여 성주목의 공납용 백사기와 상사기를 제작했던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주지역 가마터에 대한 본격적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두 사기점의 정확한 위치나 생산품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²²⁾

한편, 이문건이 지방관들에게 수증한 자기의 주요 사용처는 바로 성주이씨 가문의 영당제사가 거행되었던 안봉사였다([표5]).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했던 안봉사는 조선 세종대에 성주이씨의 증시조인 이장경(李長庚) 이하 선조 14위의 영정(影幀)을 모신 영당(影堂)의 역할을 수행한 사찰이었다. 매년 2월에는 정기적인 영당제사를, 또 성주이씨 가문의 사람이 성주를 방문했을 때는 별제(別祭)를 거행했으며, 집안에서 거행할 수 없는 절일제(節日祭)를 대신 지내기도 하였다.²³⁾ 1545년 성주에 내려온 이문건은 다음해부터 영당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가 김산현감과 황감현감에게 사기를 구청했던 것도 안봉사의 제사에 쓰기 위함이었고, 안봉사 승려들의 요청한 제사에 쓸 자기는 판관을 통해 구하거나 자신이 확보한 것을 바로 제공해주었다. 특히 성주판관에게서 세 차례 수증했던 백사기의 경우도 두 번을 안봉사에 보내 제사에 쓰도록 하였다. 당시 백자가 사대부가에서 제기로서의 특별한 위상과 쓰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제사가 거행된 날짜를 살펴보았을

22) 성주지역의 가마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주요 유적인 法水寺址는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禿用山城은 두 차례의 지표조사와 남문지와 추정 객사지에 대한 발굴과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星州 法水寺址』, 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法水寺址II』, 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星州 禿用山城 地表調査報告書』, 대구대학교박물관, 1992; 『禿用山城 東門址 精密地表調査』, 대구대학교박물관, 1999; 『星州 禿用山城 南門址』, 한국문화재단, 2017; 『성주 독용산성 (추정)객사지 정비 사업부지 내 유적』, 대동문화재연구원, 2023.

23) 안봉사는 17세기 후반 영당이 분리된 후 사세가 점차 기울어 1896년 사찰의 중심 寺域을 성주이씨 영당으로 내어주고 폐사되었다. 박정미, 「조선 명종대 星州 安峯寺의 佛教儀禮-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33집, 태동고전연구소, 2014, 138~139쪽.

때, 이문건이 안봉사에 제공한 자기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거행된 영당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안봉사의 사례로 볼 때, 조선전기까지 사찰에서 제례와 관련된 자기의 소비가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표5] 안봉사 관련 자기의 구득 및 증여 기록 - 『목재일기』

날짜		자기와 기명의 종류	내용
1546년	12월26일	沙器	안봉사에 쓸 사기를 김산현감에게 구청 → 김산현감이 제공
	12월28일	沙器 15竹	
1547년	1월25일	白沙鉢2竹, (白)貼是2竹 (白)大貼15介	판관이 안봉사의 제사에 쓸 자기를 제공
1555년	1월27일	沙器	안봉사 승려의 요청으로 황간현감에게 사기를 구청
	2월6일	白沙器 9竹, 常器 6竹	안봉사 승려의 요청으로 영당제사에 쓰도록 보냄
	2월10일	沙器 5竹	황간현감이 보낸 사기를 안봉사의 영당제사에 사용
1558년	1월17일	沙器 10竹	안봉사 승려가 구하는 사기를 판관에게 구해 지급
1559년	1월7일	沙器	안봉사 승려에게 사기를 제공

2. 『미암일기(眉巖日記)』

선조대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1567년부터 1577년까지 약 11년간 작성한 일기로 해배되기 직전부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생애 후반부의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유희춘은 을사사화(乙巳士禍)와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약 20년간 제주, 종성(鍾城), 은진(恩津)에서 유배생활을 하였고, 선조(宣祖)의 즉위와 함께 사면되어 다시 관직에 나아가 대사성, 부제학, 대사헌, 전라관찰사 등을 역임한 후

담양에 내려가 생을 마쳤다. 호남의 사족 출신으로 중앙에서 고위 관직을 두루 거쳤던 유희춘은 중앙과 지방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표6] 유희춘이 관리들에게 자기(磁器)를 수증한 내역 - 『미암일기』

날짜		수증자	수증내역	자기의 종류와 수량	
1567년	12월 1일	담양부사	白沙鉢 1竹, 白大貼 1竹, 白寶兒 1竹, 白樸匙(匙) 3竹, 白鍾子 1竹	白沙器	70개
		순창군수	白樸匙 10竹, 白沙鉢 2竹, 白大樸 3竹, 白鍾子 2竹, 中鉢 3竹	白沙器	200개
	12월10일	남원관판	沙器 5竹	沙器	500개
1568년	9월 28일	동료	沙器	沙器	●
	10월14일	광주 내금위	沙器 3竹, 大樸 5介	沙器	30개 +대접5개
		봉상시정	沙器	沙器	●
	11월17일	진도군수	常沙鉢 10竹, 常沙樸是 10竹	常沙器	100개
1570년	12월12일	옥과수령	沙樸匙 5竹	沙器	50개
		창평현령	白沙器 8竹	白沙器	80개
1571년	1월26일	해남현감	白沙鉢 1竹, 白樸匙 3竹, 白甫兒 1竹, 白宗子 1竹	白沙器	50개
	2월15일	전라병사	白沙鉢 6竹, 白樸匙 7竹, 白大樸 3竹, 白寶兒 6竹, 白宗子 3竹	白沙器	250개
1576년	2월13일	진원수령	沙器樸匙 13竹, 種子 2竹, 大樸 3竹, 沙鉢 2竹	沙器	820개
	3월 3일	남평수령	常沙鉢 13竹	常沙器	300개

자기와 관련된 기록은 1567년부터 1576년에 걸쳐 등장하는데, 관리들을

통해 백사기나 상사기를 수증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표6]). 유희춘은 1567년 사면되어 정계에 복귀한 후 선조의 각별한 신임을 토대로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부제학, 경연관 등 요직을 거치면서 현직의 고위 관료들과 폭넓은 인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게다가 동반(東班) 3품 이상, 서반(西班) 2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어진 수령과 만호(萬戶)에 대한 천거권(薦舉權)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 때문에 관직에 있는 동안 동료 관인, 친인척, 문도, 지인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양한 물품들을 선물로 제공했다. 특히 전라도를 비롯해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등 전국의 지방관들에게서 수증한 물품이 종류도 다양했고 양도 상당하였다.²⁴⁾

자기의 경우 유희춘의 연고지였던 전라도의 지방관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증되었는데, 그의 관료적 신분에 변화가 생긴 시점에 다량의 사기와 백자가 선물로 제공되었던 사실이 흥미롭다. 유희춘이 사면되어 다시 고위 관직으로 복귀한 1567년과 1568년,²⁵⁾ 그리고 관찰사로 전라도에 내려가 머물렀던 1571년 전후,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담양으로 낙향하게 된 1576년에 100점이 넘는 사기의 대규모 수증이 이루어졌다. 또 1567년 12월, 1570년 12월과 1571년 1월에는 담양, 순창, 창평, 해남의 지방관들과 전라병사가 반상기 일괄로 구성된 상당량의 백자를 선물로 보냈다. 전라도의 지방관들은 지역의 주요 인사로 중앙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희춘의 관료적 신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고위 관료와의 사회적 관계를

24) 유희춘이 물품을 수증한 것은 10여 년간 2,855회로 월 평균 42회에 달하였다. 이성임, 「조선중기 양반의 경제생활과 재부관」, 『한국사시민강좌』 29, 일조각, 2011, 74쪽. 유희춘이 수증한 물품은 곡물류를 비롯해 綿布, 衣服, 用具, 文房具, 脯肉, 魚貝類, 饌物, 果菜, 藥材, 柴 등 일상용품에서 사치품까지 다양하였고, 그 양도 상당하여 곡물과 면포의 경우 1년간의 수증의 규모가 녹봉보다 훨씬 많았다. 이성임, 「조선중기 유희춘가의 물품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9, 106쪽.

25) 유희춘은 1565년에 신원이 회복되어 恩津에 移配되었고, 1567년 宣祖가 즉위한 후 사면되어 職牒이 환수되어 다시 관직에 나아갔고, 1568년 9월에는 左副承旨, 11월에는 성균관 大司成이 되었다.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자나 사기를 귀한 선물로 보냈던 것이다. 또 유희춘이 고위 관직으로 복귀한 직후였던 1568년에는 과거의 동료나 중앙의 낮은 직급 관리들도 사기를 선물했는데, 수량은 1~2점에 불과했다.

유희춘 자신이 직접 구청(求請)하여 관청이나 지인에게서 자기를 수증한 경우도 있었다. 1567년 11월의 일기에는 사기를 비롯한 혼수용품들을 요청해 판관에게서 지급받았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²⁶⁾ 아직 은진의 배소(配所)에 있던 때라 필요한 자기를 관청을 통해 구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해배되어 관직에 복귀한 시점인 1569년~1570년에 걸쳐 유희춘이 제기(祭器)를 마련하기 위해 사옹원 봉사에게 요청해 경기도 광주(廣州)의 백자를 구입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기록에 따르면, 1569년 5월 노비가 쌀을 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제기를 사러 갔고, 1570년 6월에 사옹원 봉사 문덕수의 편지를 받은 후 제기로 쓸 백자들을 수령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노비를 시켜 그 일부를 부인이 있는 해남으로 보냈다.²⁷⁾ 사옹원 봉사 문덕수(文德粹, 1516~1595)는 유희춘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지만²⁸⁾ 청탁에 의한 무상 수증이 아니라 비용을 받고 광주의 백자를 구입해 보내준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관요에서 백자의 사변(私燔)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졌다고 이해되지만²⁹⁾ 유희춘의 사례는 조선전기에도 사대부들이 관요에서 백자를 구입할

26) 『眉巖日記』 1567년 11월23일, 1598년 5월28일.

27) 『眉巖日記』 1598년 5월28일, 6월14일, 6월15일; 1570년 8월11일.

28) 本貫은 南平, 字는 景潤, 號는 孤查이다. 松巖 李魯(1544~1598)의 외숙으로 1570년 사옹원 관원이 되었고, 1573년 유희춘이 수령으로 천거하여 陝川縣監과 丹城縣監을 지냈다. 『眉巖集』 권10 癸酉年(1573) 2월4일; 『松巖集』 권4 遺事, 鶴峯金先生龍蛇事蹟. 『眉巖日記』와 『眉巖集』에 의하면 문덕수는 1567년 공릉참봉 시절부터 유희춘과 왕래를 하며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29) 私燔은 문헌기록에 17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한다(『承政院日記』, 肅宗 3년(1677), 11월21일). 이종민은 私燔의 범주를 공적인 번조(公燔)에 해당하는 관용기의 생산 이외에 ‘생계를 위한 사적인 생산행위’, ‘관리직에 의한 사적 침탈행위’와 ‘下屬들의 班私 요구와 勒買’ 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관요의 운영시기(1467~1883) 내내 사변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사변으로 제작한 백자는 일반에 판매되어

수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관요에서 제작한 백자는 원칙적으로 어용(御用) 및 국용(國用)을 위한 것이었고, 중종대 기록에는 광주산 백자의 매매와 사용이 문제로 제기되어 규제가 논의된 사실이 등장하기도 한다.³⁰⁾ 따라서 관인사대부들에게는 제기와 같은 특정 용도에 국한되어 광주의 관요에서 만든 백자의 구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문봉사 경윤(景尹)이 백자병 1, 백자소준 1, 백자향로 1, 백자제잔 2, 백자타우 1, 백자와청자연적 각1, 이상 **백기(白器)**, **사발** 1죽, 보아 1죽, 접시 1죽, 종자 1죽, 백자 술잔 1, 받침대와 세트인 **규화[通爲一臺]** 1 이상 **중백기(中白器)**, 완 2, 보아 2, 종자 2, 접시 4 이상 **재기(滓器)**를 보내왔다. **이 얻은 것들은 재기(祭器)로 충족할 수 있으니 기쁘기 그지없다.**³¹⁾

그런데 백자제기에 대한 기록에는 당시 사용원 봉사가 보낸 광주의 백자들이 ‘백기(白器)’, ‘중백기(中白器)’, 그리고 ‘재기(滓器)’로 구분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³²⁾ 백자의 색에 근거한 명칭과 각각에 해당하는 그릇의 종류로 보았을 때, 당시 광주의 백자가 품질에 의해 세 종류로 구분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셋으로 구분된 백자의 명칭과 그릇의 종류들은 오늘날 관요의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이 시기 백자의 양상과 거의 일치한다. 현재 관요에서 제작한 백자는 품질의 차이에 의해 크게 양질과 조질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양질백자는 유색과 번조방법 등의 차이에 의해 두 유형이 다시 세분되어 양질백자의 두 유형(I·II유형)과 조질백자의 셋으로 구분될 수

장인들의 생계유지와 분원의 운영비 일부를 충당했다고 하였다. 이종민, 「朝鮮 官窯에서의 私燔 실태와 영향」, 『역사와 담론』86, 호서사학회, 2018 참조.

30) 『中宗實錄』卷60, 中宗 23년 2월6일; 『中宗實錄』卷86 中宗 32년 12월19일.

31) 『眉巖日記』1570년 6월15일, “文奉事景潤所送 白瓶一 白小樽一 白香爐一 白祭盞二 白唾盂一 白青硯滴各一 已上白器, 沙鉢一竹 甫兒一竹 櫟匙一竹 鍾子一竹 白酒盞一 葵花一通爲一臺 已上中白器, 碗二 甫兒二 鍾子二 櫟匙四 已上滓器, 得此充足祭器感極感極”.

32) 윤희춘이 언급한 내용은 문덕수가 편지를 통해 수령할 백자에 대해 제공한 것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眉巖日記』1598년 6월14일과 6월15일.

일기자료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층의 자기(磁器) 구득과 사용

있다.³³⁾

[표7] 『미암일기』에 기록된 광주백자의 종류와 관요출토 백자의 유형

	白器	中白器	淬器
특수기	白小樽1, 白祭盞2, 白香爐1, 白唾盂1, 白靑硯滴 각1	白酒盞1, 葵花1(通爲1臺)	
반상기		沙鉢10, 櫛匙10, 甫兒10, 鍾子10	碗2, 櫛匙4, 甫兒2, 鍾子2,
	양질백자 I유형	양질백자 II유형	조질백자
관요출토품			
	광주 우산리 9호 요지 출토 백자(匣燻)	광주 우산리 9호 요지 출토 백자(例燻)	광주 우산리 9호 요지 출토 백자(常燻)

일기에 언급되어 있는 백기, 중백기, 재기로 언급된 그릇의 종류는 양질백

- 33) 양질백자 내의 세부적 품질 구분은 반상기명에서만 확인되고, 특수기명은 도마리 1호 가마 외에는 양질과 조질의 구분만 가능하다. 그리고 세부 품질에서 차이가 있는 양질백자의 경우 조형의 차이는 없다. 필자는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질적 차이에 의해 크게 세 품등으로 구분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윤효정, 「조선전기 관요백자의 기명체계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05~107쪽 참고.

자의 두 유형과 조질백자에 해당하는 기명들과 대체로 합치된다([표7]). 즉, 특수기는 거의 양질백자 I유형이 위주이며, 반상기는 양질백자 I·II유형과 조질백자로 모두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당시에 이러한 백자의 유색과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 차이를 근거로 광주의 백자가 크게 세 등급으로 품등이 구분되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3. 『쇄미록(瑣尾錄)』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이 1591년(선조25) 11월부터 1601년(선조34) 2월까지 약 10여간에 걸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피난 생활 동안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이다. 저자 오희문은 서울 관동(館洞)에 거주하면서 평생 관직을 가지지 않았던 비출사 사대부였으며, 아들 오윤겸은 인조반정 이후 대사헌을 시작으로 이조판서와 좌의정, 영의정 등 중앙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충청도 임천(林川)과 강원도 평강(平康)에서 머물렀던 1594년부터 1600년에 걸쳐 등장하지만³⁴⁾ 평강시기의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임천에서는 연고도 없이 곤궁함을 면치 못하다가 아들 윤겸이 현감으로 있던 평강에 이주한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던 오희문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³⁵⁾ 두 일기에 비해 관련 기록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백자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한

34) 오희문은 1593년 6월 林川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597년 2월부터 1601년 2월까지 약 4년간 아들이 현감으로 있던 平康에서 생활하였다. 1599년 오윤겸이 평강현감을 사직한 후 1601년 1월 홍문관 수찬에 제수되고 전쟁이 종결되자 1602년 2월 서울로 다시 돌아갔다.

35) 아들 윤겸이 현감으로 있던 평강에서는 관아 인근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언제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으며, 평강시기 물품의 수준 횡수가 임천시기의 두 배가 넘었다. 이성임, 앞의 논문(2011), 75~76쪽.

내용으로는 시장을 통한 사기의 거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기의 수증, 혼수용 사기의 구득에 관한 것이 있다.

[표8] 오희문의 자기(磁器) 거래 내역-『쇄미록』

날짜		내용	거래장소	비고
1595년	12월26일	사기를 구입 : 닭 3마리 → 쌀 1斗5升과 4斗5升 → 各色沙器 1竹8立(18개)	지방장시	구입
1599년	10월21일	사기를 팔기 위해 서울에 사람을 보냄	서울	판매
	11월22일	그릇(자기) 구입 : 백미 3되, 좁쌀 5되 → 沙鉢 3개, 접시 4개, 보시기 2개	불명	구입
1600년	2월 3일	어미닭 6마리, 황랍(黃蠟) 1근으로 부인 식기의 구매를 시도	서울	구입
	2월27일	본철(本鐵) 1근과 은자(銀子) 4전을 더해 부인의 식기를 구매	서울	구입
	3월18일	서울에서 혼수에 쓸 사기를 구입 : 은 4푼 → 자기그릇 6개	서울	구입

기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의 거래와 관련된 내용인데([표 8]), 특히 지방의 장시와 서울에서 사기를 구매한 사실과 함께 거래의 방식과 가격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중요하다. 오희문은 피난 기간 동안 사기를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인근의 장시와 서울에서 구입하거나 판매하였다. 장시에서는 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쌀이나 포를 대금으로 지불하고 현물로 거래하였다.³⁶⁾ 반면 서울에서는 은(銀)을 지불수단으

36) 場市는 15세기 후반 전라도 서해안 연안 일대의 여러 읍에서 처음 출현하였고, 16세기 초반에는 각도와 읍으로 확대되었다. 장시는 매일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거래물품은 민간에서 필수적인 일용품이 중심이었다.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한국사연구회, 1987, 44~57쪽 참고.

로 주로 생활용품을 구입하였으며, 표피, 호피, 옹피 등과 같은 사치품을 판매하기도 했다.³⁷⁾ 사기의 거래는 거주지 인근의 장시와 서울에서 모두 이루어졌지만 서울에서 사기를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시를 통해 사기를 구입한 것은 임천에 거주하던 1595년이었는데, 닭을 팔로 바꿔서 사기를 구매했다는 일기의 내용을 통해 16세기 말 지방의 장시에서 사기가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의 사기 거래는 평강에서 거주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599년 10월 처음에는 서울에 사기를 팔러 갔으나 이후 1599년과 1600년에는 서울에 가서 식기와 혼수에 쓸 사기를 구입하였다. 특히 1600년 3월 18일 일기에는 혼례에 쓸 사기 6개를 은 4푼을 주고 구매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산 분주[分之]와 수저의 가격을 감안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상사기를 구입하였다고 여겨진다. 같은 해 3월 20일과 3월 21일의 일기에는 혼수에 쓸 사기를 이천(利川) 수령에게 다시 대여를 요청했던 사실이 나타나 있다.³⁸⁾ 앞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임천에서 1594년 8월에 거행된 장녀 혼례 때에는 사기를 비롯한 혼수품을 판관을 통해 관에서 빌려쓰고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³⁹⁾

개질지(介叱知)가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신부의 머리장식을 얻어 오지 못했으니 걱정이다. 의복 얻어 오는 일은 광노가 곧 강화(江華)로 갔다가 바로 이곳으로 온다고 한다. … **혼인에 쓸 물건을** 사왔는데, 자색 비단 머리 덮은 것은 은 5돈, 홀이불감포 1필은 은 4돈, 분지(分之)는 은 4돈반, **씨뻘 목화** 2근은 은 2돈, 수저는 은 1돈, **사기그릇 6개는 은 4푼**이어서 도합 1냥6돈9푼인데, 이것은 곧 인아의 송아지 판 돈으로 쓴 것이다.⁴⁰⁾

37) 이성임, 「조선중기 吳希文家의 商行爲와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8, 조선시대사학회, 1999, 52~58쪽.

38) 『瑣尾錄』 1600년 3월20일, 3월21일.

39) 『瑣尾錄』 1594년 8월10일, 8월22일.

40) 『瑣尾錄』 1600년 1월21일, “介叱知自還京來, 新婦首飾未得而來, 可恨, 衣服覓來事,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오희문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기를 수증하기도 했다. 1597년 11월에 아들 윤겸이 광주(廣州) 목사가 선물한 사기 2족의 일부를 오희문에게 보내준 것이었는데,⁴¹⁾ 평강현감에 제수된 오윤겸이 타지의 관리로부터 축하의 선물로 자기를 수증한 것이었다. 경기도 광주는 관요가 운영되면서 백자를 생산하던 곳이었기에 광주의 지방관은 지역 특산품인 자기를 귀한 선물로 타지의 관리에게 선물로 제공했던 것이다. 아들을 통한 간접적인 수증 외에 오희문 자신의 지인에게서 직접 자기를 선물받은 경우도 한 차례 있었다. 1598년 임천에서 알게 된 인물인 소척(蘇隲)이 사발, 보시기, 그리고 술잔과 받침을 선물하였는데, 그가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일기의 내용으로 볼 때, 오희문이 받은 식기와 주기는 서울의 시장에서 구입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⁴²⁾

Ⅱ. 16세기 사대부층의 자기(磁器) 구득과 사용의 양상

1. 사회적 관계망과 자기의 구득

일기를 작성한 유희춘, 이문건, 오희문은 모두 사대부였지만 사회적 신분은 각기 달랐다. 유희춘은 호남의 사족 출신인 현직의 고위 관료였고, 이문건은 중앙관을 역임했던 재지사족이었으며, 오희문은 관직에 출사한 이력이 없는 사대부였다. 관직과 결부된 사회적 위치가 달랐던 세 사람은 자기를 구한 경로는 물론 확보해 사용한 자기의 규모나 종류도 차이가 있었다([표9]).

光奴則往江江都，直來于此云云，見生員(允諧)書，母主時未入城云，婚時所用之物買來，紫色緋緞遮首銀五錢，單衾次布一疋銀四錢，分之銀四錢半，去核木花二斤銀二錢，匙箸銀一錢，沙器六介銀四分，并銀兩六錢九分，此乃麟兒賣積之銀而費用矣”。

41) 『瑣尾錄』 1597년 11월 29일, “廣牧贈平康沙器二竹 平康亦送余家沙鉢八立帖是九介…”。

42) 『瑣尾錄』 1598년 1월 3일, “…余所用則布一疋價之 隲又獻沙鉢一保兒一酒杯臺具矣”。

[표9] 유희춘, 이문건, 오희문의 구득한 자기의 규모

유희춘(柳希春) (1513-1577)	현직 고위관료	수증 > 구매	백사기 : 60-250개 사 기 : 10-820개
이문건(李文健) (1495-1567)	재지사족	수증 > 구매/대여	백사기 : 1-150개 사 기 : 1-150개
오희문(吳希文) (1539-1613)	비출사 양반	수증 < 구매/대여	사 기 : 3 -20개

고위직의 현직관료였던 유희춘은 대여나 구매 보다는 지속적인 수증을 통해 충분히 자기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일기에 의하면 유희춘 자신이 구청하여 자기를 얻은 경우는 없었고, 거의 관리들이 자발적으로 다량의 백사나 사기를 선물로 제공한 것이었다. 다른 물품들의 수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자기의 경우는 자신의 연고지였던 전라도의 지방관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증되었다는 점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유희춘에게 자기를 수증한 것은 담양, 해남, 남원, 순창, 창평, 진도, 옥과, 진원, 남평의 수령들이었다. 담양은 유희춘의 처향(妻鄉)으로 처가의 일족들이, 해남은 유희춘이 태어난 곳으로 큰누이와 딸과 첩실이, 남원과 순창에는 작은 누이와 동생이 각각 살고 있었다. 또 그의 친가인 선산 유씨들이 순천과 해남, 창평에 거주하였다. 전라도에는 그의 친가, 외가, 처가, 서가(壻家)까지 혈연과 연결된 넓은 지역적 관계망이 존재하였던 것이다([그림2]). 뿐만 아니라 유희춘은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담양과 순천, 해남의 유향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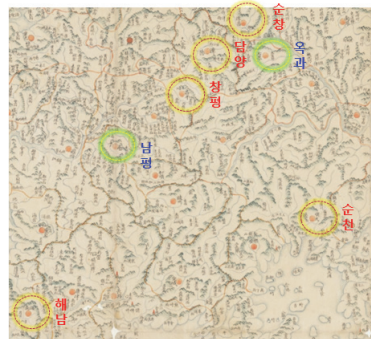


그림2. 〈朝鮮八道地圖〉
18세기중반~19세기 초 간행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古4709-54)

경제소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좌수와 별감의 인사권을 행사하였고,⁴³⁾ 수령이나 만호의 관직에 대한 추천권도 가지고 있었다. 유희춘에게 광주 백자를 구해준 사옹원 봉사 문덕수와 자기를 수증했던 옥과수령 송응서(宋應瑞)는 그의 추천으로 수령이 되었다.⁴⁴⁾ 그가 다시 중앙 관직에 복귀한 직후인 1568년에 과거의 동료와 봉상시정이나 광주내금위와 같은 직급이 낮은 관리들이 사기를 선물했던 것도 고위 관직에 오른 유희춘과의 친분을 확인하거나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유희춘은 관직의 추천권을 가진 중앙정계의 주요 인사이자 호남의 재지사족으로서 지역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던 호남의 지방관들은 고위 관직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로 백자나 사기를 보낸 것이었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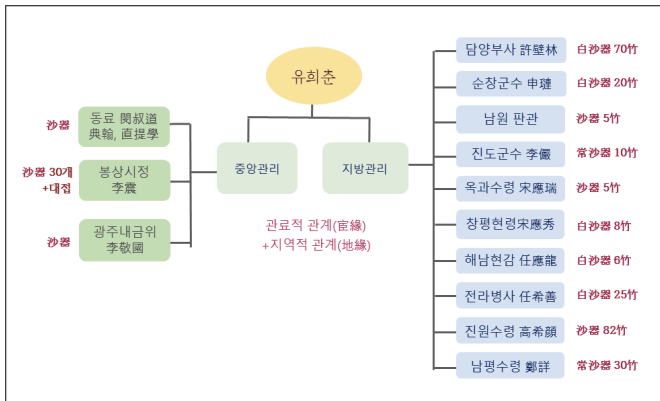


그림3. 유희춘의 자기의 수증(受贈)과 연망(緣網)

43) 고영진, 「양반관료 유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태학사, 2009, 155쪽.

44) 앞의 주28) 참고.

한편, 이문건은 정배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중앙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관료의 이력과 함께 재지사족으로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기에 다양한 경로로 필요한 자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자기를 구득한 주요 경로는 수증이었는데, 성주와 인근의 지방관들과 친분이 있던 지인이나 지역의 인사들이 백자를 포함한 상당량의 자기를 이문건에게 선물의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그가 구득한 자기의 대부분은 성주지역 판관에게 수증한 것이었는데,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체에도 불구하고 판관들에 의한 자기의 수증은 꾸준히 이어졌다. 유희춘과 달리 이문건은 필요한 자기를 성주와 인근의 지방관들이나 지인에게 구청하여 수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산현감과 황간현감은 안봉사에 제기로 쓰기 위해 이문건이 구청하자 보내주었고,⁴⁵⁾ 삼가현감 유직경(劉直卿)은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 사기를 선물하였다.⁴⁶⁾ 특히 성주의 판관에게도 여러 차례 자신은 물론 지인이 필요한 자기를 요청하여 수증했다.⁴⁷⁾

구청이 아닌 지인들의 선물로 백자나 사기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문건에게 자기를 선물로 준 이들은 유배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었거나 성주에서 새로운 친분관계를 맺게 된 지역의 인사들이었다. 선산의 은거 처사였던 황기로(黃耆老)는 이전부터 교류가 있던 지인이었고,⁴⁸⁾ 성주판관의 사촌이었던 윤화(尹和)와 판관의 사위였던 유생 박응렬(朴應烈)은 성주에 와서 수시로 만나 교류했던 새로운 지인들이었다.⁴⁹⁾

45) 『默齋日記』 1545년 12월26일과 12월28일; 『默齋日記』 1555년 2월10일, 1557년 5월9일.

46) 『默齋日記』 1560년 1월26일과 10월23일, 1563년 2월1일과 10월21일.

47) 『默齋日記』 1546년 1월24일, 1553년 1월3일, 1555년 12월28일, 1557년 5월9일.

48) 『默齋日記』 1553년 5월7일, 1556년 8월9일, 1557년 9월4일.

49) 『默齋日記』 1555년 3월23일, 1556년 9월19일,

일기자료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층의 자기(磁器) 구득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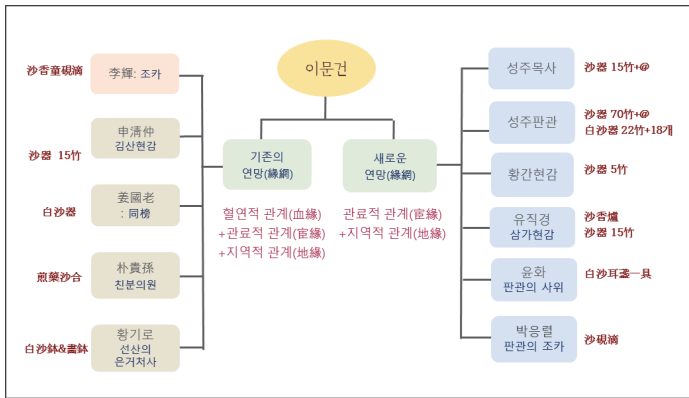


그림4. 이문건의 자기의 수증(受贈)과 연망(緣網)

이문준이 구축한 자기는 거의 대부분이 성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방관과 지인들에 의해 수증된 것이었다(그림4). 그는 성주의 재지사족으로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배를 오기 전 당상관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인물로 다시 중앙관리로 복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성주의 지방관을 비롯한 유력자들은 그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유지하고자 했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를 자발적으로 선물하거나 구청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오탁문의 경우는 수증보다는 관청에 요청하여 빌려 쓰거나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필요한 자기를 겨우 확보해 쓸 수 있었다. 전쟁으로 지역적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출사를 하지 않았기에 관직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도 거의 형성되지 않아 수증을 통해 자기를 구득하기가 어려웠다. 그나마 아들 윤겸이 출사하여 평강현감이 된 이후 수증이 이루어졌지만 지방관인 아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수증이 한 차례, 자신의 지인에게서 사기를 선물받은 경우가 한 차례 있었을 뿐이었다. 더욱이 유희춘이나 이문건이 매우 드물긴 하지만 사기와 함께 그보다 품질이

좋은 백자도 수증에 의해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오희문의 경우는 수증이나 구매를 통해 백자를 구할 수는 없었고,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상사기를 구매해 쓸 수 있었다.

결국 유희춘과 이문건, 그리고 오희문의 사례는 당시 사대부가에서는 관직과 결부된 환연(宦緣)이나 지역적 연고나 영향력에 기반한 지연(地緣)을 매개로 이루어진 수증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기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희문처럼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지 못한 사대부들은 수증을 통해 자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쓰기가 어려웠고,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청이나 지인에게 대여하거나 시장에서 구매를 시도해 확보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희문의 경우도 평강으로 간 이후 서울에서 여러 차례 자기를 구입했던 사실로 보면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 자기를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2. 사대부가에서 사용된 자기(磁器)의 종류와 사용처

왕실과 관련된 기록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는 ‘자기(磁器)’라는 명칭이 사찬 사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세 일기에서도 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대신 자기를 ‘사기(沙器)’, ‘백사기(白沙器)’, ‘백기(白器)’, ‘상사기(常沙器)’라고 지칭하거나 ‘사(沙)+그릇의 종류’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당시 민간에서는 자기보다 사기라는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자기의 질적 차이에 의해 백자와 사기가 구분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특히 『목재일기』에는 이문건이 성주의 판관에게서 수증하거나 사기점에서 공물로 징수한 자기를 백사기, 상사기, 백기, 상기, 사기라고 다르게 지칭되어 있다.

여종영(呂從英)이 사람을 보냈기에 바로 판관에게 알리니, 판관이 **상사기**(常沙器)와 누룩[麴生] 등의 물품을 주었다.⁵⁰⁾

판관이 **백사기**(白沙器) 8죽과 또 1죽을 주었고, 잔 3개·과일 4종류·꿀 2되·깨 1말·참쌀 1말 등을 보내 제수(祭需)에 보내주었다. 또 종이 5권을 천택(天澤)에게 보냈다.⁵¹⁾

자공(子公)이 어제 색리(色吏)가 써 준 문서를 지니고 법수(法水)의 사기점(沙器店)에 **상기**(常器)를 가지러 갔는데, ...⁵²⁾

어제 여안(呂安)을 유곡(酉谷)의 사기점(沙器店)에 보내어 판관에게 보낼 봄 정월 **월령백기**(月令白器) 10죽을 찾아오게 했다. ...⁵³⁾

그렇지만 성주와 관련된 지리지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읍지 자료인 『경산지(京山志)』⁵⁴⁾와 『성주군읍지(星州郡邑誌)』⁵⁵⁾에는 성주목의 토산이 ‘자기(磁器)’로 기록되어 있다.⁵⁶⁾ 이 사실로 본다면, 당시 백사기, 상사기, 백기, 상기, 사기가 모두 자기의 범주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50) 『默齋日記』 1553년 11월5일.

51) 『默齋日記』 1554년 1월2일.

52) 앞의 주18).

53) 앞의 주19).

54) 이원정(李元禎)이 쓴 사찬 읍지로 경상북도 성주군의 연혁, 풍속, 물산, 고적, 인물, 사묘, 지리 등을 기록한 사찬읍지로 1668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677년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55) 1899년에 편찬된 경상북도 성주군의 읍지로 이원정이 쓴 『경산지』를 많이 전사했고 호구·전부·전세·군액 등의 내용이 보충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5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8 慶尙道 星州牧, “土產 銀口魚, 松葷, 紫草, 漆, 蜂蜜, 磁器, 安息香, 海松子”; 『京山志』 “土產 銀口魚, 松葷, 紫草, 漆, 蜂蜜, 磁器, 安息香, 海松子, 柿栗, 石榴”; 『星州郡邑誌』, “土產 銀口魚, 銀鱗魚, 訥魚, 鯨魚, 黃魚, 松葷, 紫草, 漆, 蜂蜜, 磁器, 安息香, 海松子, 竹, 柿栗, 石榴”.

그리고 세 일기에는 공통적으로 ‘백사기’와 ‘사기’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고품질의 자기인 백자를 일반 사기와는 분명히 구별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일기에서 등장하는 자기와 관련된 명칭의 사용 빈도는 ‘사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백사기’와 ‘상사기’의 순서인데, 기록에 언급된 각각에 해당하는 그릇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 [표11]이다.

[표11] 일기에 등장하는 자기(磁器)의 유형과 그릇의 종류

	『미암일기』		『목재일기』		『쇄미록』	
	반상기	특수기	반상기	특수기	반상기	특수기
백사기 白沙器	白沙鉢, 白樑題, 白大貼/白大樑, 白寶兒/ 白甫兒, 白鍾子/白宗子	白小樽, 白瓶, 白祭盞, 白酒盞, (白)葵花通爲一臺 白香爐, 白唾盂, 白硯滴	白沙鉢 (白)大貼 (白)貼是	白沙耳盞一具		
상사기 常沙器	常沙鉢 常沙樑匙		常沙器			
사기 沙器	沙鉢, 沙樑匙 樑匙, 大樑, 鍾子		沙鉢, 沙皿, 沙貼是, 甫兒, 匕貼	誌石, 沙硯, 沙硯滴, 沙香童硯滴, 煎藥沙合, 沙合,	沙鉢 貼是 保兒	

‘백사기’는 『미암일기』와 『목재일기』에 등장하는데, 반상기 외에 다양한 특수기의 종류가 포함되었다. ‘상사기’는 『미암일기』와 『목재일기』에 보이지만 용례가 극히 드물고, 『미암일기』에만 반상기인 발과 접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사기’는 세 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반상기가 위주이고 특수기도 있지만 백사기보다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세 일기에 기록된 백사기, 상사기, 사기에 해당하는 그릇의 종류를 조선 전기에 제작된 백자의 예들과 비교해보면, 백사기와 상사기 및 사기는 각각 양질백자와 조질백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당시에 자기는 크게 ‘백사기’와 ‘상사기’로 구분되었고, 각각은 ‘백기’나 ‘상기’로도 지칭되었다고 여겨진다. 또 ‘사기’의 경우는 백사기와 상사기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백사기보다 품질이 낮지만 당시 민간에서는 보다 폭넓게 사용되던 상사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일기를 작성한 세 인물이 확보하여 사용한 자기는 규모의 차이도 컸지만 ([표9]) 품질과 그릇의 종류도 달랐다. 유희춘은 지방관들로부터 수증한 상당량의 백자와 사기는 모두 반사기에 해당하는 그릇들이었다. 백사기의 경우는 발 · 접시 · 대접 · 종자 · 보아로 구성된 반사기가 일괄로 수증된 반면⁵⁷⁾ 사기의 경우는 사발 · 접시 · 대접 · 종자 중 2개나 3개의 종류가 개별로 선물한 차이가 있었다. 유희춘이 제기로 쓰기 위해 사옹원 봉사 문덕수를 통해 구입한 백자에 특수기의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준(樽), 병, 제주잔(祭酒盞), 규화잔(葵花盞)과 받침, 향로, 타우, 연적이 그 종류이다. 이것은 오늘날 관요의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백자 특수기명의 종류와도 합치되며 이러한 특수기들은 거의 관요에서만 제작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이문건의 경우는 지방관에게서 수증한 백사기와 사기는 거의 사발 · 대접 · 접시와 같은 반사기였으며, 특수기는 향로, 향합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수증한 자기의 경우는 거의 특수기였으며, 백자인 백사이잔과 사기인 연적, 사합(沙合), 향로, 향합 정도였다. 이문건의 사례는 당시 지방의 사대부

57) 보아와 종자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여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조선전기부터 반사기의 발, 접시와 함께 반사기를 구성한 주요 기명이었다는 사실을 일기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정희정은 큰 그릇인 사발과 작은 그릇인 종지로 크게 대별되다가 점차 사발, 보아, 종지로 분화되었고, 조선시대 말기 사발, 조치, 보아, 종지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추정하였다. 정희정, 「음식기명 보아(甬兒)에 관한 고찰」, 『도예연구』 2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2017. 137~138쪽.

들이 구득해 사용한 자기는 거의 반상기가 위주였고, 특수기는 문방구나 향기(香器) 정도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기는 수증 빈도가 높았음에도 그릇의 종류가 언급되지 않은 채 수량만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쇄미록』에도 ‘사기’라고만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희문의 경우는 사기인 반상기 사발·접시·보아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16세기에 사대부들이 쓴 백사기와 (상)사기는 모두 반상기에 해당하는 그릇들이 위주였으며, 특수기의 경우는 백사기 보다는 (상)사기로 제작된 연적이나 벼루와 같은 문방구와 향로, 향합, 지석과 같은 의례기의 종류들에 한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세 일기의 내용에 의하면, 16세기에 사대부가에서 자기의 주사용처는 혼례와 제사였다. 특히 유희춘과 이문건 모두 상사기보다 고품질의 자기였던 백사기는 제기를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목재일기』의 1535년 12월에 기록된 이문건의 부친의 제사를 위해 유기, 사기, 쟁반 등의 물건을 꺼내서 닦았다는 내용을 통해⁵⁸⁾ 당시 사대부가에서 자기를 제기로 쓴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문건은 성주의 관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물(祭物) 또는 제수(祭需)라는 명목으로 사기나 백사기를 제공받았고,⁵⁹⁾ 특히 관관에게 받았던 백사기를 집안의 제사나 안봉사에서 거행된 성주 이씨 가문의 영당 제사를 위해 사용하였다.⁶⁰⁾ 『미암일기』에도 제기와 관련된 기록이 1568년~1570년에 걸쳐 다수 등장한다. 유희춘은 1568년 10월에 광주내금위 이경국으로부터 사기 3죽과 대접 5개를 수증하게 되자⁶¹⁾ “마침 제사에 쓸 그릇이 필요하였으니 더욱 감사하다”고 하며 선물로 받은 자기를 제기로 사용하였다. 또 1569년에는 사옹원 봉사를 통해 제기로 쓸 백자의 구입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1570년 관요에서 제작한 백자를 얻게 되자 “이 얻은 것들은 제기로 충족할 수 있으니 기쁘기 그지없다”고 하며 제기를 제대로 갖추게 된 기쁨을

58) 『默齋日記』 1535년 12월24일, 2월26일.

59) 『默齋日記』 1545년 12월23일, 1553년 5월4일, 1554년 1월2일,

60) 『默齋日記』 1554년 1월2일과 1월27일, 155년 2월6일.

61) 『眉巖日記』 1568년 10월14일.

표하였다.⁶²⁾ 유희춘은 20년간의 유배생활로 제기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해배가 되자 선물로 받은 자기를 제기로 쓰게 되었고 이후 광주에서 백자제기를 구입하여 제대로 구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관요에서 제기로 쓸 백자의 구입과 관련된 기록이 『목재일기』에도 등장한다. 1536년 6월에 화재로 제기가 소실되자 이문건은 노비를 시켜 서울에 가서 제기를 사오도록 했고, 7월에 봉사 민덕우(閔德祐)가 사서 보낸 사기를 수령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⁶³⁾ 이문건이 민봉사를 통해 서울에서 제기로 쓸 사기를 구입한 것이 분명하지만 민덕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록을 찾기 어려워 그가 사용원 봉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희춘의 사례나 자기에 접근이 가능한 신분적 위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문건에게 사기를 구해준 민덕우 역시 사용원 봉사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두 일기에 등장하는 기록은 16세기에 사대부가에서는 자기가 제기로서의 쓰임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례와 관련된 자기의 사용에 대한 기록은 『미암일기』와 『쇄미록』에서 볼 수 있다. 유희춘은 은진에서 유배중이던 1567년에 혼수로 쓰기 위해 요청한 사기를 판관에게서 지급받았는데,⁶⁴⁾ 유배생활 동안 수증으로 자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혼례를 위해 꼭 필요한 사기를 관청을 통해 빌려 썼던 것이다. 오희문의 경우도 곤궁했던 임천에서 치른 1594년의 장녀와 함열현감 신응구(申應溝, 1553~1623)의 혼인 때 관청에서 사기를 빌려 쓰고 돌려주었다.⁶⁵⁾ 그렇지만 1600년 경제적으로 안정된 평강에서 치러진 차녀와 김덕민(金德民, 1570~1651)의 혼인에 쓸 사기의 일부는 시장에서 구매하고, 일부는 타지의 지방관에게 구청하여 빌려 썼다.⁶⁶⁾ 유희춘과 이문건은 지인으로부터 혼례에 쓸 사기를 요청받고 구해주시기도 하였다.⁶⁷⁾ 당시 자기

62) 앞의 주31).

63) 『默齋日記』 1536년 6월4일, 6월26일, 7월5일.

64) 『眉巖日記』 1567년 11월23일.

65) 앞의 주38)과 주40).

66) 앞의 주39).

67) 『眉巖日記』 1568년 1월1일; 『默齋日記』 1557년 5월9일.

는 사대부가에서 혼례를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물품의 하나였으며 오희문처럼 자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던 사대부들은 관청이나 지인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빌려 쓴 후 돌려 주기도 했고, 구매를 해서 쓰기도 하였다.⁶⁸⁾ 조선 후기 한양에서는 세기전(貰器廩)이나 세물전(貰物廩)에서 혼례용 물품을 빌려 주었는데⁶⁹⁾ 혼수용 사기의 사용이 점차 사대부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관청 뿐 아니라 시전에서의 상업적인 대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일기자료인 『미암일기』, 『목재일기』, 『쇄미록』의 기록을 토대로 당시 사대부층의 자기의 구득과 사용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세 일기를 통해 16세기에 사대부들이 자기를 어떻게 확보했고 어디에 썼는지 사용의 실상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수증, 대여, 구매를 통해 자기를 구득하였다. 자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증이었으며, 선물이나 구청을 통해 자기를 수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청이나 지인에게서 빌려서 쓰거나 시장에서의 구매가 시도되었다. 자기의 수증은 주로 지역적 연고나 관직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에 따라 사대부층 내에도 자기의 사용 양상은 큰 차이가 있었다. 즉, 현직의 고위관료였던 유희춘은 중앙과 지방의

68) 조선시대에 결혼은 매우 중요한 의례로서 혼례에 쓸 물품도 의례 중 가장 많아 혼수의 마련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여 관청에서 혼례에 쓸 물품을 빌려주거나 비용을 도와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홍선표, 「조선 말기 평생도의 혼례 이미지」, 『미술사논단』 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162쪽.

69) 貰物廩에서 사기를 빌릴 경우 건당 값이 10전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유본에 저, 장지연 역해, 『한경지략』 市廩 貰物廩, 590쪽.

관리들을 통해 상당량의 백자와 사기를 지속적으로 수증하여 충분한 자기의 확보가 가능했고, 중앙 관료의 이력을 가지고 관향에 유배되었던 이문건은 재지사족으로서 거주지와 인근의 지방관에게서 선물이나 구청에 의해 백자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사기를 제공받아 필요한 자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관직의 이력도 없고 타지에서 피난생활로 지역적 연고마저 없었던 오희문의 경우는 자기를 수증할 기회가 거의 없어 필요한 자기를 관청이나 지인에게 빌려 쓰거나 시장에서의 구매를 시도해 겨우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적 연고나 관직과 결부된 사회적 관계는 사대부들이 쓸 수 있는 자기의 규모나 품질 및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일기자료의 기록을 통해 당시 사대부가를 비롯한 민간에서 사용된 자기는 품질의 차이가 있는 백사기와 상사기로 구분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6세기까지도 고품질의 자기인 ‘백사기’는 사대부가에서도 구득과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상사기’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었다. 또 사대부가에서 자기의 주 사용처는 혼례와 제사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대부가의 혼례에서는 사기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지인을 통해 구하기도 했지만 관청에서 빌려 쓴 경우가 많았다. 반면 사대부가의 제사에는 자기가 유기와 함께 제기로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는데, 빌려서 쓰기도 한 혼수용 사기와 달리 제기는 수증이나 구매를 통해 제대로 구비를 해서 썼다는 점이 달랐다. 특히 상사기보다 품질이 좋은 백사기는 사대부가에서도 제기를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기자료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본 연구를 통해서 16세기까지도 자기는 사대부들도 쉽사리 구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혼례나 제사와 같은 의례를 위주로 특별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당시 자기가 품질에 의해 백사기와 상사기로 구분되어 사용되었고, 사회적 관계망과 결부되어

사대부들의 자기 구득과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관인사대부들이 사옹원 봉사를 통해 경기도 광주의 백자를 구입한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의 자기 사용에 대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默齋日記』
『眉巖日記』
『瑣尾錄』

단행본

유본예 저, 장지연 역해, 『한경지략』, 2020.
한국국학진흥원,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보고서

대구대학교박물관, 『星州 禿用山城 地表調査報告書』, 1992.
대구대학교박물관, 『星州 禿用山城 東門址 精密地表調査』, 1999.
대동문화재연구원, 『성주 독용산성 (추정)객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2023.
대한문화재연구원, 『星州 法水寺址I』, 2017.
대한문화재연구원, 『法水寺址II』, 2018.
한국문화재단, 『星州 禿用山城 南門址』, 2017.

논문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26(1), 2000.
김연수,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혼맥(婚脈)과 친족관계」, 『한국민속학』75, 2022.
박정미, 「조선 명종대 星州 安峯寺의 佛教儀禮-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332집, 태동고전연구소, 2014.
윤효정, 「조선전기 관요백자의 기명체계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57, 한국사연구회, 1987.
- 이성임, 「조선중기 오희문가의 상행위와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8, 1999.
- _____, 「조선중기(朝鮮中期) 유희춘가(柳希春家)의 물품구매(物品購買)와 그 성격(性格)」, 『한국학연구』9, 1998.
- _____, 「16세기 지방 군현의 공물분정(貢物分定)과 수취」,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7.
- _____, 「조선중기 양반의 경제생활과 재부관」, 『한국사시민강좌』29, 일조각, 2011.
- _____, 「16세기 양반 사족의 貢納制 참여 방식:李文健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105, 2012.
- _____,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89, 2019.
- 이정수, 『『墨齋日記』를 통해 본 지방 匠人들의 삶』, 『지역과 역사』 18호, 부경역사연구소, 2006.
- 이종민, 「朝鮮 官窯에서의 私燔 실태와 영향」, 『역사와 담론』86, 호서사학회, 2018.
-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해배 직후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3, 2015.
- 정희정, 「음식기명 보아(甫兒)에 관한 고찰」, 『도예연구』26,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2017.
- 홍선표, 「조선 말기 평생도의 혼례 이미지」, 『미술사논단』47, 한국미술연구소, 2018.

Abstract

ACQUISITION AND USAGE OF PORCELAINS IN THE 16TH
CENTURY *SADAEBU* CLASS-BASED ON THE DIARY RECORDS
OF *MIAMILGI*(眉巖日記), *MUKJAEILGI*(墨齋日記),
SWAEMIROK(瑣尾錄)-

YOON HYOJEONG (YOON, HYO JEONG)

This article examines the acquisition and use of porcelain by the Sadaebu (士大夫) society of the 16th century Joseon based on the records of the 『Miam Diary(眉巖日記)』, 『Mukjae Diary(默齋日記)』, and 『Seomirok(瑣尾錄)』, which are representative diary sources of early Joseon period.

A review of relevant records reveals that the Sadaebu society of 16th century had different routes for acquiring porcelain depending on one's social posi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 offices, and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he size and quality of the porcelain acquired and used.

Yoo Hee-chun(柳希春, 1513-1577) and Lee Moon-geon(李文健, 1495-1567), who were the godfathers of government officials, received substantial amounts of porcelain, including Baeksagi(白沙器) which was high-quality white porcelains, from central and local officials as gifts or through the district office. On the other hand, Oh Hee-moon(吳希文, 1539-1613), who did not have a history of government service, borrowed from government offices, acquaintances, or purchased from the market.

In the 16th century, there were three main ways to acquire porcelain in gentry society: gift, loan, and purchase. Since the gift of porcelain was almost exclusively made through local connections and government positions, the size, type, and quality of porcelain acquired and used varied greatly even within the great families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ir social networks.

The main use of porcelain was for ancestral rites and wedding ceremonies in Sadaebu society, but the difference was that porcelain for wedding ceremonies was borrowed or purchased from the government or acquaintances, while ceremonial porcelain for ancestral rites was purchased rather than borrowed, or secured by deeds or ward offices. In particular, Baeksagi was used mainly for ancestral ceremonies.

Key Words : *Mukjae'ilgi*(墨齋日記), *Miamsilgi*(眉巖日記), *Seomirok*(瑣尾錄), *Baeksagi*(白沙器, high-quality white porcelain), *Sangsagi*(常沙器, low-quality white porcelain), Vessels for ancestral rites(祭器), porcelains for wedding(婚需沙器), social network(緣網)